

中 성장, 이전 속도 아닌 質

■ 후진타오 주석 17차 大대 발언으로 본 미래

“인민 재산 수입 확대...생태문명 건설하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 보고에서 사용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표현들이 중국의 변화상과 미래상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인민들의 ‘재산성(財産性) 수입’ 확대, ‘생태문명(生態文明)’ 등의 새로운 표현들은 후 주석의 2기 집권이념인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건설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산성 수입’=후 주석은 보고에서 “더욱 많은 인민이 재산성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등장한 ‘재산성 수입’이란 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 부동산을 의미한다. 일반 서민들이 부를 증식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정부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인당 GDP’ 목표치 제시=후 주석은 또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는 2020년 1인당 GDP를 2000년의 4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5년 전인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도 GDP 목표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1인당 GDP 목표치는 없었다.

16차 당대회에서는 파이를 키우기

에 바빠 분배에는 신경을 거를이 없었지만 17차 당대회에서는 파이를 나눠먹는 게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중국은 지난 4년 연속 10% 이상 고도성장을 계속하면서 GDP 규모로는 세계 4위가 됐다. 하지만 1인당 GDP는 2002년 1천100달러로 처음으로 1천달러를 돌파한 뒤 2006년에는 2010달러로 2천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세계 순위는 129위다.

◇‘생태문명’=보고내용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생태문명의 건설과 에너지절약형, 생태환경 보호형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구조의 형성”이다.

12차에서 15차 당대회에 이르는 동안 공산당은 줄곧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했다. 생태문명은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 이념이 압축돼 녹아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에서 ‘발전’으로=중국 공산당은 13차 대회 이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앞으로 중국 경제가 ‘우호우쾌(又好又快)’에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우쾌우호’였지만 올해부터는 ‘우호우쾌’로 ‘쾌’와 ‘호’의 순서를 바꿔 빠른 성장보다는 성장방식까지 고려해 “좋은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좋은 성장”이란 수출과 투자위주에서 벗어나 내수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친화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다.

/성하이=연합뉴스



워싱턴의 달라이 라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백악관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만난 뒤 자신이 목고 있는 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미 의회는 17일 미 의사당에서 부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이 라마에게 황금메달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중국 정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재산증식’ 솔깃하는 중국인들

“더욱 많은 인민이 재산성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당대회 보고 가운데 처음으로 제시한 ‘재산성(財産性) 수입’이라는 신종 어법에 중국인들이 솔깃해하고 있다.

신화통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재산성 수입이란 은행예금, 유가증권 등 동산과 주택, 차량, 토지, 소장품 등 부동산을 의미한다.

상푸린(尙福林)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은 일반 서민들이 한층 많은 투자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주석을 밝혔다.

상 주석은 금융업종 대표단과의 토론에서 “재산성 수입 증식을 위한 조건창출이라는 표현이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재산성 수입은 금융상품, 예컨대 저축, 채권, 보험, 주식 등 각종 투자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은행 저축이 현재 15조위안(1천800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 중국 대륙의 초미의 관심은 주식시장이다.

/성하이=연합뉴스

푸틴 ‘이란 핵권리’ 옹호

美 등 서방세계에 “공격 말라” 경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이란의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 권리”를 옹호하면서 미국 등 서방세계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란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과의 면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카스피해 국가들은 다른 외부 세력이 무력을 사용하는데

자국 영토를 내치서는 안된다는 뜻도 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적인 핵 활동은 허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사실상 미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제기돼 온 이란 공격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힐 “북 플루토늄 포기때 평화체제 논의”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플루토늄 50kg을 폐기해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6일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호주의 싱크탱크(두뇌집단)인 시드니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올해까지는 북한의 핵 시설 폐기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북한이 자국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 50kg을 전부 포기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논란중인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 “금년 말까지 북한이 보유중인 어떠한 프로그램도 완전 포기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렇게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good reason)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8m 웨딩드레스 한 중국인 신랑이 15일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자신의 신부가 입을 길이 200.8m, 폭 3m, 무게 약 100kg의 웨딩 가운 정렬을 지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종간 지능차 입증 유전자 10년내 발견” DNA선구자 왓슨 밝혀

유전자 이종나선구조를 밝혀내 생명과학 연구의 새 장을 연 석학 제임스 왓슨(79) 박사가 모든 인종의 지적 능력은 동일하다는 오랜 믿음을 잘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7일 보도했다.

DNA 연구로 지난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왓슨 박사는 최근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흑인들이 백인과 동일한 지적능력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아프리카정책은 잘못됐다”며 “인종간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유전자가 10년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왓슨 박사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려는 성향이 있으나 흑인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왓슨의 이 같은 견해는 내주 출간될 그의 저작에도 실릴 예정이다.

왓슨은 이 저작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돼 진화해온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동일하게 진화했을 것이라고 여길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동등한 이상의 능력을 보편적 인간성의 유산으로 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日 업체 일제시대 탱크모형 제품 ‘여자정신대 인형’ 끼워팔기 논란

일본의 유명 플라스틱 모형 업체가 일제시대 탱크 모형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여자정신대 인형’을 부록으로 끼워 팔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안구업체 등에 따르면 일본의 군사모형 플라스틱 모형 제작업체 F사는 오는 11월 초순 1/35(일본)제국육군 이식포격전차·호이차여자정신대 피겨 <사진>를 발매하기로 하고 온·오프라인 완구점과 모델 판매점 등을 통해 예약주문을 받고 있다.

F사는 일제 육군이 태평양전쟁 당시 전선에 배치했던 탱크 실물의 35분의 1 크기인 이 제품을 최근 일본에서 열린 전시회에 출품해 일만에 공개하면서 “일본 육군 환상의 포격전차, 마침내 전선 투입! 이 스케일(실물 35분의 1 크기) 최초 여자정신대 피겨 포함”이라는 선전 문구를 붙였다.

문제의 여자정신대 인형은 세일러복 차림에 앞가르마를 탄 쪽진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으며 버선발에 고무신을 신고 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과 전자 모형 동호인 사이에서는 이 인형이 일제시대 말기 정신대로 동원된 한국인 여성을 본뜬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F사가 여자정신대 강제동원의 역사를 상업주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모 군사모형 모형 동호회의 한 회원은 “앞 가르마에 쪽진 머리, 버선발에 고무신이라면 그건 명백히 한국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정신대라는 이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다들 뭐 카페검색 하시 마늘주사 후루민

<http://cafe.daum.net/furumin>

☎ (062) 383-5889

인텔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경제오” 될적위상...
난방난방이 책임집니다.

인텔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인텔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인텔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TEL: 0621262-0101